

## 스포츠

8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백지선 감독

### 男아이스하키 백지선호 2022 베이징 향해 출항

13일 개막 헝가리 유로챌린지 출격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남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을 향해 본격적인 향해를 시작한다.

백지선호는 13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막하는 2019 유로아이스하키 챌린지(EIHC) 출격을 위해 9일 출국했다. 헝가리와 프랑스, 일본(이상 A조) 그리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이상 B조)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 성적을 바탕으로 최종 순위 결정전을 벌인다.

5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 2019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선수권 디비전1 그룹A에서 승점 하나 차이로 월드 챔피언십행 티켓을 따내지 못한 백지선호는 7개월만의 재소집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번 대회 목표는 역시 내년 4월 개막하는 2020 세계선수권 디비전1 그룹A와 8월 열리는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최종예선을 대비한 밑그림 작업이다.

백지선호는 지난 5월 세계선수권에서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를 연파하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내년 4월 대회에서 만날 상대 역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로 모두 유럽 강호로 통한다.

만만치 않은 일전을 남겨둔 백지선 감독은 젊은 피들을 대거 발탁하며 힘을 불어넣었다. 수비수 남희두(22·안양 한라)와 이호성(26·대명 칼러웨이즈)을 새로 선발했고, 현재 헝가리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20세 이하(U-20) 대표팀 후보 선수들을 일부 포함시켰다. 이는 모두 내년 예정된 올림픽 최종예선을 고려한 사관 짜기의 일환이다.

백지선호는 12일 우크라이나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 뒤 13일 벨라루스와 2차전을 벌인다. 순위 결정전 상대는 14일 A조 경기 종료와 함께 결정이 난다. 우크라이나는 2017년 4월 세계선수권 디비전1 그룹A 최종전에서 2-1로 꺾은 바 있고, 벨라루스는 5월 세계선수권에서 4-1로 완파한 경향이 있는 상대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반환점 눈앞에 둔 V리그, 치열한 순위 경쟁



반환점을 앞둔 '2019~2020 도드람 V리그' 남녀부가 치열한 3강 싸움으로 재미를 더하고 있다. 승패 하나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지략 대결을 펼치고 있는 남자부 대한항공 박기원, 우리카드 신영철, 삼성화재 신진식 감독과 여자부 GS칼텍스 차성현, 현대건설 이도희,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 한 치 앞도 예측 못할 3강...팬들은 흥미진진

남자부 1위~3위 승점 3점차 불과  
4위 현대캐피탈 오겔로 효과 상승세  
후반기 판도 좌우할 다크호스로 부상  
여자부도 3강팀들 승점 1점차 포진

'봄 배구' 진출권을 따낼 수 있는 3강이 좁은 승점 차로 웅기종기 모여 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바로 아래 중위권 그룹이 호시탐탐 추월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환점을 눈앞에 둔 '2019~2020 도드람 V리그' 남녀부 모두 치열한 순위 싸움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이 발돋움 세운다  
남자부는 올해도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매치업인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양강 체제가 점차 굳어졌다. 대한항공은 기대대로 승점을 차곡차곡 쌓았지만 현대캐피탈은 외국인 선수 공백을 피하지 못했다. 그 사이 '3강 후보'로 꼽혔던 우리카드는 물론 다크호스였던 OK저축은행, 삼성화재가 치고 올라왔다. 1라운드를 5위로 마치는 건 현대캐피탈의 예상 밖이었다.

차이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요스바니 에르난데스가 개막 2차전만에 부상으로 이탈했고, 대체 외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고 '우간다 특급' 다우니 오켈로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오켈로는 압도적인 타점을 자랑하며 뚜껑을 열자마자 현대캐피탈의 약진에 앞장서고 있다.

9일까지 선두 대한항공(승점 29)은 2위 우리카드(승점 27), 3위 삼성화재(승점 26)에 근소하게 앞서있다. 하지만 한

두 경기에 뒤질릴 수 있는 차이에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서서히 완전체 전력을 갖춰가는 4위 현대캐피탈(승점 21)도 중후반기 돌풍을 예고했다.

하위권에는 1라운드를 5승1패 선두로 마친 OK저축은행(승점 21)이 이후 2승6패로 처져있다.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이상 승점 13)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승점 1 차이로 헤쳐모인 3강

여자부는 1위 GS칼텍스(승점 25)와 2위 현대건설, 3위 흥국생명(이상 승점 24)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막을 앞두고 내걸었던 예측과 너무도 다른 판세다. 다크호스 수준으로 여겨졌던 GS칼텍스는 강소희와 이소영으로 이뤄진 토종 쌍

포의 힘을 앞세워 선두까지 치고 나왔다. '디펜딩 챔피언' 흥국생명은 외국인 선수 루시아 프레스코가 총수령으로 한 달 가까이 이탈했지만 이재영을 중심으로 한 국내 선수들이 톱툰 뭉치며 공백을 최소화했다.

흥국생명과 함께 양 강으로 꼽혔던 도로공사(승점 16)는 4위에 처져있다. 외국인 선수 테일러 쿡이 부상으로 5경기째 결장 중이다. 냉정히 말해 경기에 나설 때도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됐던 자원은 아니다. 박정아를 중심으로 국내 선수들은 제 기량을 뽐내고 있지만 테일러가 코트 안팎에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남자부와 마찬가지로 하위권에 처진 KGC인삼공사(승점 13), IBK기업은행(승점 9)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우승 농친 김연경, 아쉬움 달랜 '베스트 아웃사이드 스파이커 상'

엑자시바시, 세계클럽선수권 준우승  
이모코에 겨 3년만의 정상탈환 불발

터키리그에서 활약 중인 '배구 여제' 김연경(31·엑자시바시)이 눈앞에서 우승컵을 놓쳤다.

엑자시바시는 8일 중국 샤오싱에서 끝난 국제배구연맹(FIVB) 여자배구 세계클럽선수권에서 이탈리아 이모코 발리 코네크리아노에게 세트스코어 1-3(25-22 14-25 19-25 21-25)으로 역전패했다. 주포 보스코비치가 24점(블로킹 1개·서브에이스 2개), 김연경이 15점(서브에이스 2개)로 분



김연경(왼쪽)이 속한 엑자시바시가 8일 중국에서 끝난 FIVB 여자배구 세계클럽선수권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다. 샤오싱(중국) | 신화뉴스

전했지만, 예고누가 33점(블로킹 1개·서브에이스 3개)을 폭발시킨 이모코를 넘어서지 못했다. 2015·2016년 연속 우승 이후 3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했던 엑자시바시는 대회 준우승에 만족해야했다.

엑자시바시는 조별리그 패배의 아픔을 되갚아주지 못했다. 당시 엑자시바시는 이모코와 나란히 조별리그 A조에 속했고 1-3으로 고개를 숙였다. 블로킹에서 5-13으로 크게 밀린 것이 패인이었다. 결승에서 이모코를 다시 만난 엑자시바시는 팀 공격에서 58-57로 앞섰다. 하지만 블로킹에서 6-11, 서브에서 5-6으로 열세였다. 여기에 범실 관리에도 애를 먹었다. 이모코가

10범실에 그친 반면 엑자시바시는 23개 범실을 쏟아내면서 균형을 이룬 삼각판대의 강점을 적절히 살리지 못했다.

올 시즌 주장을 맡은 김연경은 이 대회 득점 6위(72점)를 차지하며 베스트 아웃사이드 스파이커 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팀 동료인 리베로 심계가 베스트 리베로 상을 받았다. 최우수선수의 영예는 이모코 에이스 예고누에게 돌아갔다.

엑자시바시로선 낙심해 있을 여유가 없다. 터키리그로 돌아가 최상위 자리를 지켜야 한다. 개막 10연승을 달린 엑자시바시는 라이벌 바키프방크(9승1패)를 간발의 차이로 앞선 상태다. 패마침 빅 매치가 예정돼 있다. 15일 바키프방크와 안방 맞대결을 펼친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 국내 대회 첫 4만 명 신화 도전 ... 2020 서울국제마라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세계 7대 플레티넘 라벨 대회 승격  
참가자엔 뉴발란스 기념품도 증정  
오늘 오전 10시부터 참가 신청 시작

SEOUL  
MARATHON  
2020

2020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회 동아마라톤대회 참가 신청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풀코스 2만 명, 10km 코스 1만 5000명, 릴레이 50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국내 대회 사상 처음으로 4만 명을 모집하는

이번 대회는 내년 3월 22일 열립니다.

10년 연속 국내 유일 골드 라벨 대회로 열린 서울국제마라톤은 내년 세계 7개밖에 없는 플레티넘 라벨 대회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보스턴, 아테네 마라톤과 함께 세계육상 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참가자에게 뉴발란스 기념품을 드립니다. 풀코스는 고급 기능성 싱글렛, 10km와 릴레이는 반팔 기능성 티셔츠를 제공합니다. 풀코스, 릴레이 5시간 이내 한국인 완주자에게 완주 기념 티셔츠를 별도로 드립니다.

서울, 광주, 경주 3개 대회를 모두 완주해 동아마라톤 런저니를 달성한 참가자는 스페셜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아마라톤 올해의 선수상은 런저니 달성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외국인 참가자의 참가비는 70달러로 인상합니다.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 대회 홈페이지(www.seoul-marathon.co.kr)  
문의 : 02-361-1410, 팩스 02-361-1361  
e메일 : 한국인(marathon@donga.com), 외국인(service@seoul-marathon.kr)

